

근현대 지리학의 아시아 연구 경향과 새로운 의제들

이강원 전북대학교 지리교육과

이 글은 근현대 지리학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 경향을 살펴보고, 한국의 지리학이 아시아에 대해 연구할 때 고려되어야 할 의제들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시아의 공간적 범위와 하위지역 구분 문제에 대해 검토하면서, 아시아라는 개념과 하위지역 구분의 다양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둘째, 제국주의와 세계대전 시기 지리학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리히트호펜의 중국연구, '그레이트 게임'과 '로프노르 논쟁', 지정학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당시의 지리학은 열강의 지정학적 쟁탈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다. 셋째, 냉전과 탈냉전 시기 지리학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 목록들을 살펴보았다. 냉전 시기 지리학은 과학화를 과제로 삼고, 지역지리학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아시아에 대한 연구 역시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탈냉전 시기에 이르러 지리학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다시 활기를 띠고 있다. 마지막으로, 한국 지리학이 아시아를 연구할 때 아대륙(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또는 국가 규모의 지역지리 서술 그리고 지정경학 및 환경론적 주제들에 관심을 두었으면 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주제어 지리학, 아시아, 지정학, 환경론, 지역지리학

I. 서론

일반인이나 전문가에게 있어 일반적으로 지리학은 땅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지리학은 땅을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다. 19세기 중반 지리학이 지질학과 분리되어 대학의 학과체제 속에 자리 잡았을 때, 지리학의 목적은 땅 자체의 해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해명'에 있었다. 철학은 사변과 논리를 통하여, 역사학은 문자로 남겨진 기록에 의거하여, 고고학은 물건을 통해, 문학은 작품에 근거하여, 사회인류학은 발전단계 비교에 의해 인간을 해명한다는 구분 속에서, 지리학은 지표변화를 통해 인간을 해명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지리학의 목적은 인간의 해명이고, 방법은 지표공간 변화의 탐구에 있었다.

지표공간은 기후, 지형, 수문, 식생, 동물, 촌락, 도시, 교통, 경제, 정치 등 다양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공간적 요소들이 지표 위에 어떻게 배열되고 변화하며, 그것이 인간사회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해명하는 것이 19세기 중반 대학의 학과 체제에 속하게 된 지리학의 목적과 방법이였다.

다른 학문들에도 유사한 경향이 없지 않지만, 지리학에는 두 가지의 이원론적 구조가 있다. 하나는 계통지리학(일반지리학)과 지역지리학(특수지리학)이라는 이원론적 구조이며, 다른 하나는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이라는 이원론적 구조이다. 물론 근대적 지리학자들은 지역지리학자들이었다. 그러나 지리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나타난 계통지리학과 지역지리학이라는 이원론은 지리학자로 하여금 지표공간 구성요소 중 전문적으로 다루는 '분야'와 지표공간의 단위들 중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역'을 갖도록 요구하였다. 따라서, 오늘날 지리학자는 자기 소개서에 계통적 분야(예로, 정치지리학, 경제지리학, 문화지리학 등)와 전문 연구지역(아시아, 중국, 한국, 수도권 등)을 동시에 표기하는 경향이 있다.

근대적 지역지리학자들에게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의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었다. 이후 계통지리학의 발전 과정 속에서 자연지리학과 인문지리학의 분화가 나타났다. 이는 본래 '지표공간 변화의 동인이 어디에서 기인한 것인가'라는 연구 관점 혹은 소재에 따른 구분이었지만, 대학 학문체계의 문과/이과 구분 속에서 각각 별도의 학문처럼 다루어지는 경향이 없지 않았으며, 자연과 인간을 함께 다루는 지리학의 본질을 훼손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였다. 다행스럽게, 최근 이러한 경향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은 이러한 학문적 목표와 방법을 가진 지리학이 근현대 시기에 아시아에 대해 어떠한 연구를 수행하였는지 시기별로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근현대'라고 지칭된 시기는 지리학이 대학에서 특정한 학과로 자리 잡은 시기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기간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된다.

첫째, 아시아의 공간적 범위와 하위지역 구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들은 '지리적'이라는 단어에서 불변의 고정된 실체를 연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아시아' 혹은 '유럽'이라는 지리적 개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 어떤 지리적 개념도 불변의 고정된 실체가 아니며, 다만 새로이 고안

되는 것일 뿐이다. ‘아시아’라는 개념이 얼마나 유동적인지 그리고 지리학자들이 그에 대해 얼마나 다양한 구분을 하고 있는지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근현대 지리학자들의 아시아에 대한 연구를 제국주의 시기, 세계대전 시기, 냉전 시기, 탈냉전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세계사적 변화는 지리학의 전개과정과 무관하지 않다. 제국주의 시기는 대학체제 속에 지리학이 학과로서 설립되는 시기이며, 동시에 유럽의 지리학자들에 의해 세계 지표공간의 3차원적 윤곽이 완성되는 시기이다. 세계대전 시기는 완성된 지표공간의 윤곽을 두고 분할과 합병이 진행되는 시기이다. 이때까지의 지리학은 소박한 경험주의에 입각한 지역지리학이 주를 이루었다. 따라서 제국주의 시기에서 세계대전에 이르는 시기를 하나의 장으로 묶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동시에 시작된 냉전은 실질적으로 지리학자들의 현지답사에 많은 제약을 가져왔으며, 해외 현지답사를 위주로 한 전통적인 지역지리학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었다. 대신에 논리실증주의와 ‘계량혁명’이라는 ‘과학화’의 흐름 속에서 지리학은 새로운 길에 들어선다. 이에 따라 지표공간 요소의 계통적인 분석이 주를 이루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이론의 세례를 받게 되었으며, 탈냉전 이후에는 비교적 자유로운 현지답사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과학화’ 운동의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지리학이 등장하게 되었다. 지리학의 다른 계통분야와 달리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탈냉전의 효과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에, 냉전 시기에서 탈냉전 시기를 하나의 장으로 묶었다.

셋째, 마지막으로 향후 한국의 지리학이 아시아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견지했으면 하는 사항들을 언급하면서 결론을 대신하고자 한다.

II. 아시아의 범위와 하위지역 구분 문제

1. 아시아의 범위 문제

‘유라시아(Eurasia)’라는 단어는 ‘유럽(Europe)’과 ‘아시아(Asia)’라는 단어를 합성

한 것이다. 하나의 대륙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유라시아’가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아메리카 대륙의 발견과 궤를 같이 한다. 아메리카 발견 이후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는 구대륙, 아메리카는 신대륙으로 불렸다. 구대륙인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는 수에즈 운하가 건설되기 이전에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육지의 연장성상에서 본다면 사실은 하나의 대륙과 같다.

사람들은 세계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고정불변하면서도 자연적이며 비정치적인 기초가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지리적인 기초’라고 부르는 경향이 있다(Grataloup, 2009: 11). 따라서 유럽과 아시아는 고정불변하면서도 자연적이며 비정치적인 기초, 즉 “카라해-우랄 산맥-볼가강 동쪽 분수계-카스피해-카프카스 산맥 북쪽-아조프해-흑해-보스포러스 해협-다이나넬즈 해협-에게해-수에즈 운하-홍해-아든만”이라는 지리적 기초에 의해 구분된다고 믿는다. 이러한 믿음은 지금도 중등교육과정의 『지리부도』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계는 가변적이며,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것이다. 1748년 발간된 『법의 정신』에서 몽테스키외에게 유럽의 동쪽 한계는 볼가강이었으며, 1751~1780년 발간된 『백과전서』에서 디드로에게 유럽의 동쪽 한계는 우랄산맥이었다(Grataloup, 2010: 96-99). 이러한 경계의 확정 노력은 유럽에서의 국민국가의 확립과 동시에 발생했으며, 그 척도는 문화적인 것, 즉 기독교(가톨릭과 정교)의 분포범위였다.

문제는 유라시아라는 하나의 대륙이 ‘유럽 대륙’과 ‘아시아 대륙’이라는 두 개의 대륙으로 인식된다는 데 있다. 이러한 인식은 고유한 자연적 경계(natural boundary)의 기초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며, 문화적 경계(cultural boundary)를 자연화(naturalization)한 것일 뿐이다.

가변적이고,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경계를 불변적이고, 비정치적이며, 자연적인 경계로 만든 것은 18세기 말~19세기 초반의 유럽인들이다. 당시 유럽인들은 유라시아 속에서 유럽을 하나의 대륙으로 간주함으로써, 유라시아를 두 개의 대륙으로 분리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유럽인들이 자기동일성(아이덴티티)을 고정불변적인 것처럼 확보할 수는 있었지만, 유라시아의 나머지에 대해서는 단지 ‘비유럽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다시 말해서, 유라시아의 비유럽적인 부분이 ‘아시아’가 되었으며, 그에 따라 아시아의 다양성은 은

폐되어버렸다.

그러나 실상은 이와 같지 않다. 유럽은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과 같은 아시아의 하위지역들과 면적에서나 문화적 척도에서나 같은 규모이다. 따라서 유럽은 대륙이 아니라 유라시아 속의 하나의 하위지역으로 구분되어야 적절할 것이다.

한편, 18세기 말~19세기 초에 형성된, 고정불변의 지리적 단위로서 ‘유럽’이라는 개념은 최근 도전을 받고 있다. 우랄 산맥은 더 이상 기독교의 분포 한계선이 아니며, 교통의 장애물도 아니다. 우랄 산맥에서 오호츠크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은 ‘유럽’이나 ‘아시아’라는 개념으로 포착하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다. 터키의 유럽연합(EU) 가입을 둘러싼 논란도 ‘유럽’이나 ‘아시아’라는 개념이 도전받고 있는 예에 속한다. 터키는 문화적으로 기독교 범주에 속하지 않으며, ‘아시아 공동체의 축전’이라는 아시안게임에도 출전하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존재 역시 ‘유럽’이나 ‘아시아’라는 개념이 도전을 받는 예에 속한다. 이스라엘 역시 아시안게임에 출전하지 않는다.

2. 하위지역 구분의 다양성

아시안게임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51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처음 열렸지만, 그 전신은 1913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동아시아 올림픽대회(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말레이시아, 홍콩 등 6개국 참가)와 1934년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서아시아 경기대회(인도, 아프카니스탄, 스리랑카, 팔레스타인 등 4개국 참가)이다. 유라시아의 유럽이 아닌 지역에서 처음부터 공동체로서 ‘아시아’라는 자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1951년 인도의 뉴델리에서 아시안게임이 처음 열렸을 때, ‘아시아’의 단일성은 반제국주의에서 도출될 수 있었으며, 반제국주의는 ‘유럽이 아니다’라는 소극적 자기동일성(아이덴티티)이었을 뿐이다. 최근에는 ‘오세아니아’로 분류되었던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가 통계자료나 스포츠 연맹들에서 동아시아로 분류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며, 따라서 아시아의 반제국주의적 자기동일성도 희석화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전통적으로 아시아로 분류되었던 지역 내부의

하위지역들이 부각되고 있는 추세다.

영미권 지리학자들이 편찬한 세계지역지리 교과서들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관찰된다. 러셀과 니펜은 ‘동양지역(Oriental reg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시아를 단일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Russell and Kniffen, 1951). 휠러 등도 ‘동양(Orie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아시아를 단일한 지역으로 분류하였다(Wheeler et al., 1969).

반면, 1990년을 전후하여 아시아에 대한 지역구분은 보다 상세하게 이루어진다. 잉글리쉬 등은 아시아라는 범주를 사용하지 않고, 일본·한국, 중국,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로 구분하였고, 우랄 산맥 동쪽의 소련과 중앙아시아는 ‘소련과 동유럽’으로 구분하였다(English et al., 1989). 브래드쇼 등은 아시아라는 범주를 사용하지 않고,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북아프리카로 구분하였고, 우랄산맥 동쪽의 러시아와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주변국’으로 구분하였다(Bradshaw et al., 2009). 데 블레이 등은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서남아시아·북아프리카로 구분하면서, 소련령의 중앙아시아는 ‘서남아시아·아프리카’에 포함시키고 있다(de Blij et al., 2010). 물론 러시아는 별도의 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다. 마스톤 등은 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러시아연방·중앙아시아·트랜스 카프카스 국가군으로 구분하고 있다(Marston et al.,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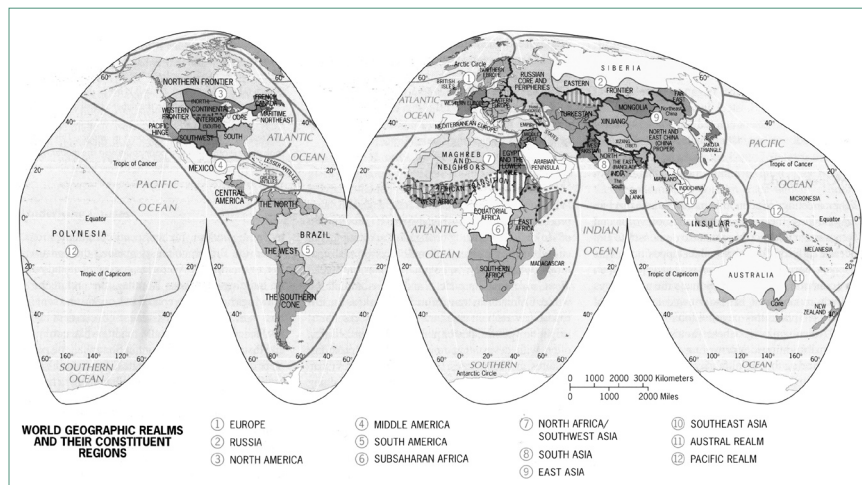


그림 1 데 블레이 등(de Blij et al., 2010)의 세계지역 구분.

표 1 데 블레이 등(de Blij et al., 2010)의 아시아 지역 구분

지리적 권역	구성지역	국가
러시아	러시아 핵심 및 주변(유럽) 시베리아 동부 변경 극동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서남아시아	투르케스탄 제국 국가들 중동 아라비아 반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아프카니스탄, 터키, 이란 시리아, 요르단, 이스라엘, 레바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남아시아	서부 북부 동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부탄 방글라데시 인도(남부/북부)
동아시아	자코타(JAKOTA) 삼각 중국 몽골 신장 티베트	한국, 일본, 타이완 중국(중국본토/만주) 몽골 중국 중국
동남아시아	대륙	미얀마, 태국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도서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편, 헌팅턴은 전통적 대륙 개념이나 아대륙(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중앙아시아, 러시아 등)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문명’을 중심으로 세계지역을 구분하였는데, 전통적으로 아시아라고 불린 지역은 중화, 힌두, 불교, 일본, 이슬람(일부), 정교(일부)로 분류되고 있다(Huntington, 1997). 지리학자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구분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 대학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세계지역지리 교과서인 데 블레이 등의 책에는 세계의 대륙을 유라시아, 아프리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등의 5대륙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세계의 지리적 권역과 그 구성부분(world geographic realms and their constituent regions)’이라는 명칭으로 지역을 구분하고 있다(de Blij et al., 2010). 이 책의 아시아 지역 구분은 그림 1 및 표 1과 같다.

지리학에서 지역구분은 연구를 위한 일종의 가설이면서 동시에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다. 과거에 비해 다양하고 상세한 지역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시아가 그만큼 역동적이고 또한 아시아에 대한 지리학적 인식이 향상되었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의 범위와 하위지역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것은 변화하는 지정경학적 상황(geopolinomical situation)을 반영해야 하는 지리학자들의 과제라 하겠다.

III. 제국주의~세계대전 시기 지리학의 아시아 연구

1. 제국주의 시기

1) 리히트호펜

근대적 유럽 지리학의 출발은 아시아에 대한 연구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최초의 지리학 강좌 교수였던 독일의 칼 리터(Carl Ritter)가 출간한 『地誌(Erdkunde)』(1832~1859년 제2판 출간)는 전 21권 중 제1권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제2권~제21권 모두 아시아에 대해 다루고 있다(Tezuka, 1998: 126-129). 미완성이었지만, 아시아에 대해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는 아시아를 답사한 적이 없었다.

지리학이 대학의 학과체제에 자리 잡는 시기는 제국주의 시대와 중첩된다. 1874년 프로이센 정부가 각 대학에 지리학과를 설립하였다. 이는 1870년 보불전쟁의 결과 지리학을 가르쳐야 한다는 필요성이 부각되었기 때문이다(이희연, 1991: 181-182). 이 시기 지리학자들의 시선은 제국들의 변경에 향해 있었다. 특히 해양 영국과 대륙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는 일종의 세력권의 공백지대에서 지리학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아시아에서는 중앙아시아, 중국, 한반도 등이 지리학자들의 주요 활동 무대였고, 많은 저술들이 발간되었다. 한편, 1871년 파리에서 세계지리학회가 개최되었고, 1922년 앤트워프에서 국제지리학연합(IGU)이 정식으로 결성되었다. 국제적인 학회조직의 탄생에는 제국주의 시기 지리적 지식의 폭발적인 증가와 제국들의 이해관계 문제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

었다. 당시의 세계지리학회는 학술적 축제이면서 동시에 국가적 자존심을 건 일종의 ‘승부’였다.

당시 독일의 아시아 연구는 리히트호펜(Richthofen)으로부터 시작된다(이하 리히트호펜의 전기적 사실은 Martin and James, 1993: 166-168에 의함). 그는 1860년 프로이센 정부 사절단의 일원으로 동아시아의 자연과 자원을 조사하였고, 1868~1872년 캘리포니아 은행과 상하이 상공회의소의 재정지원으로 중국 동부해안·중국령 내륙아시아 변경지역·광둥·구이저우·쓰촨·만주 등을 답사하였다. 답사결과 1877~1912년 사이에 『중국(China)』(전 5권)을 저술하였다.

제1권에서 그는 중앙아시아의 산맥구조와 산지지형이 민족분포와 이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하였다. 이를 통하여 산악 및 유목문화와 농경문화 사이의 역사적 갈등이 어떠한 지리적 기초 위에서 나타났는지 추적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실크로드(Seidenstraßen)’라는 개념이 제시되었고, 이는 후대의 많은 학자들에게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다. 제2권은 중국 북부지방의 자연지리와 민족, 경제활동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자오저우만(칭다오 항구)의 전략적 가치를 언급하여, 이후 독일이 이 지역을 조차하는 데 논리적 기초를 제공하였다. 제3권은 중국 남부에 관한 것이다. 그는 중국 남부 중에서도 구이저우, 쓰촨, 광둥에 주목하였다. 구이저우 일대의 석회암 지형과 토지이용 체계에 대해 다루었고, 쓰촨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독일의 중국 내륙 투자가 쓰촨을 거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리히트호펜의 연구와 무관하지 않다.

지리학사에서 리히트호펜이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것은 그가 지리학의 목표를 인간과 자연환경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였다는 점과 대학체제 속에 자리 잡은 지리학의 학술적·실용적 효용성을 증명하였다는 데 있다. 뒤늦게 세계분할 투쟁에 들어선 독일로서는 아시아에 대한 정보에 목말라 있었으며, 리히트호펜은 중국에 대한 체계적인 분포학적 서술로 이에 호응하였다. 따라서, 유럽 지리학의 학술적 체계화에 아시아가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시 그가 지리학 방법론으로 제창한 분포학(chorology)은 기존의 지역지리학과 계통지리학을 넘어서는 제3의 방법이었다. 그것은 특정지역의 모든 지표요소의 현상 기술(지역지리학)을 넘어서고, 또한 지표요소들 사이

의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진행된 계통적 기술(계통지리학)을 넘어서, 특정지역의 개성을 드러내는 핵심적 지표요소를 선정하고 그것들 사이의 상호관계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 전통적 지지(地誌)에서 나타나는 나열적 서술을 탈피하고자 하였다.

2) ‘그레이트 게임’과 ‘로프노르 논쟁’

아시아를 놓고 19세기 초부터 20세기 초까지 100여 년에 걸쳐 진행된 영국과 러시아의 세력 다툼을 ‘그레이트 게임(Great Game)’이라고 부른다(Hopkirk, 2008). 아시아 중에서도 ‘그레이트 게임’이 첨예하게 진행된 지역은 아프카니스탄, 신장, 티베트와 극동의 한국이었다. 이 게임의 흔적은 지금도 지표공간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아프카니스탄 동쪽 힌두쿠시 산맥의 외간 완충지대(Wakhan strip)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그레이트 게임’이라는 지정학적 배경하에서 여러 지리학자들이 이 지역을 답사하게 된다. 지리학자들이 수행한 학술적 답사보고와 출간물은 학계는 물론 대중에게도 널리 알려졌고, 이러한 결과물들은 지리학자들이 속한 국가가 그 지역을 둘러싼 게임에서 승리의 대가로 받은 ‘금메달’과 같은 것으로 인식되었다. 각국 지리학자들의 답사보고를 그 나라 세력권의 확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러시아의 프르제발스키(Prevevsky), 스웨덴의 스벤 헤딘(Sven Hedin), 영국의 버드 비숍(Bird Bishop) 등의 저서들이 베스트셀러가 된 것은 이러한 지정학적 열기와 무관하지 않다.

‘로프노르 논쟁(Lop-Nor debate)’은 중국 신장의 타림분지 타클라마칸 사막의 동단에 위치하는 로프노르 호수의 위치와 성격을 둘러싼 지리학자들의 논쟁으로 ‘그레이트 게임’의 와중에서 각국 지리학회와 자존심을 건 대결로 번졌다(‘로프노르 논쟁’의 시작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이강원, 2007: 114-132를 참조할 것).

그 서막은 러시아의 장교이자 지리학자였던 프르제발스키에 의해 열렸다. 그는 자원 및 해양진출 루트와 부동항의 조사를 위해 만주, 한국 북부, 중앙아시아, 티베트 등을 답사하였다. 특히 1867~1869년 사이에 극동의 우수리지방을 답사하면서, 함경도 경흥과 녹둔도 일대를 방문하기도 하였다(Goncharov et al., 2006). 그는 러시아 왕립 지리학회의 원조를 받아 1870~1885년 4차에 걸쳐 내륙

아시아에 대한 탐험을 수행하였다.

제2차 탐험(1876~1877년)에서 중국의 고대문헌에 ‘염택(鹽澤)’ 또는 ‘로프노르(羅布泊: 뽕부보)’ 등으로 표시된 호수를 발견했으며, 그 호수는 현지에서 ‘카라쿠쑤’이라 불리고, 담수호이며, 주위에 염소택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청나라 지도의 로프노르는 그 위치가 잘못 표시된 것이며, 그 지도에 표시된 것보다 위도 1도 아래에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그의 탐험 결과는 내륙아시아, 특히 당시까지도 지리적 인식의 공백으로 남아 있던 타림분지 일대에 대한 지리학적 윤곽을 제공하는 의의를 지닌 것으로 높이 평가되었다.

그러나, 그의 ‘발견’은 당시 베를린 지리학회 회장이자 세계 지리학계의 권위였던 리히트호펜의 반박에 직면하게 되었다. 1878년 4월 베를린 지리학회에서 리히트호펜은 프르제발스키의 탐험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발표하였다. 요지는 청나라 지도에 표시된 로프노르의 위치는 정확한 것이며, 염호라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프르제발스키는 반박을 하였고,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재차 증명하기 위하여 1883~1885년 사이에 제4차 중앙아시아 탐험을 수행하였으며, 리히트호펜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그의 탐험에 뒤이어 1885~1894년 사이에 유럽 각국의 지리학자들이 속속 타림분지에 들어와 조사를 하였고, 이들은 프르제발스키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이로써 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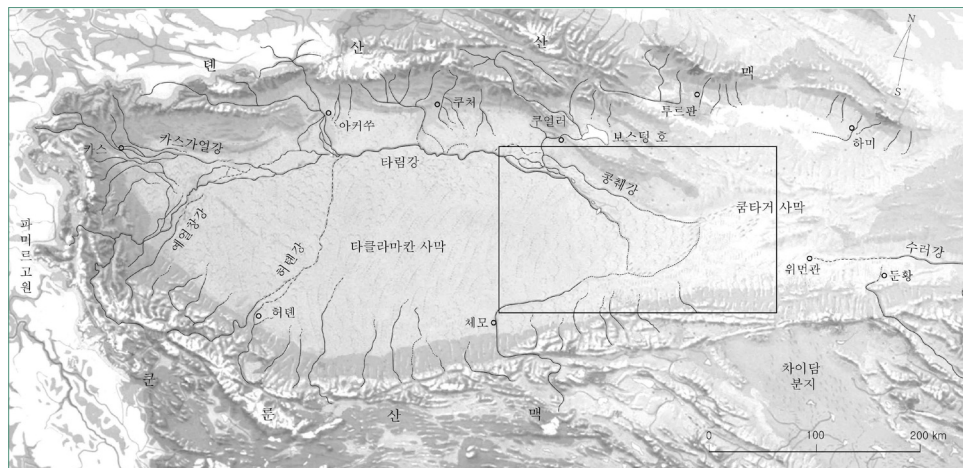


그림 2 중국령 신장의 타림분지와 로프노르 논쟁 구역(이강원, 2007: 120).

런 학자들은 이 논쟁이 프르제발스키의 승리와 리히트호펜의 패배로 종결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프르제발스키는 이후 제5차 중앙아시아 탐험 도중 사망하였다.

한편, 리히트호펜은 자신이 다시 탐험에 나서지는 못하였지만, 여전히 프르제발스키의 주장이 잘못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제기한 비판의 정당성을 증명하기 위하여, 스웨덴 출신의 제자 스벤 헤딘에게 타림분지에 대해 조사할 것을 권유하였다. 이후 헤딘은 전 생애에 걸쳐 6차에 달하는 내륙 아시아 탐험에 나서게 되었고, 1896년 이래 세 차례에 걸쳐 로프노르 지역에 진입하게 된다.

1897년 스웨덴으로 돌아온 그는 1893~1897년 사이의 탐험의 성과를 대중서 형식으로 여러 언어로 출간하였다. 그는 프르제발스키가 발견한 호수가 진정한 로프노르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1897년 10월 그가 러시아 왕립 지리학회의 초청으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강연하였을 때, 러시아 지리학회는 여전히 그가 잘못된 보고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강연 후, 프르제발스키의 제자 코즐로프(Kozlov)는 “1897년 10월 15일 스벤 헤딘 선생의 러시아 왕립 지리학회 강연 중의 로프노르”라는 장문의 글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그는 프르제발스키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리히트호펜과 헤딘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자존심을 건 논쟁에 마지막 쐐기를 박기 위하여, 헤딘은 1899년 6월 스웨덴 국왕과 기업이 노벨의 후원을 받아 다시 탐험에 나서게 된다. 이 탐험에서 그는 프르제발스키가 로프노르라고 주장한 카라쿠슌에 이르러 담수호임을 확인하였으며, 리히트호펜이 ‘진정한’ 로프노르라고 주장한 지역에 이르러 염각(鹽澆)의 바닥을 드러낸 호수의 흔적을 발견하였고, 그 부근에서 로우란(樓蘭) 유적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 발굴을 통하여, 그는 로우란 유적이 기원후 4세기 초 이래 쇠락의 길을 걷다가 사막 한가운데에 폐허로 남겨졌으며, 그 원인이 로프노르 호수의 고갈과 관련되어 있다고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발견과 리히트호펜의 주장 및 이전에 수행하였던 헤딘의 탐험 결과 사이에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 따라서 이 발견에 비추어 이전의 것들이 전면적으로 재해석될 필요가 있었고, 그런 이유로 헤딘은 ‘방황하는 호수 설(theory of wandering lake: 遊移湖說)’로 이름 붙여진 가설을 제시하게 되었다. 중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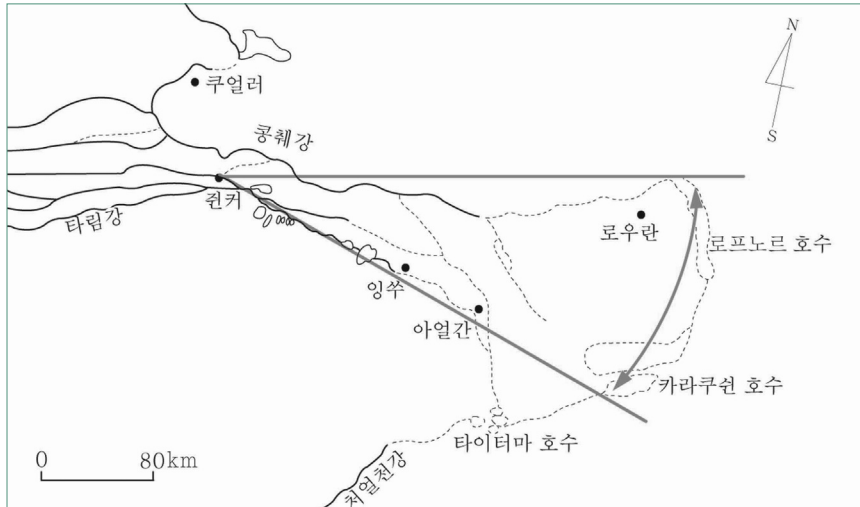


그림 3 스벤 헤딘의 방황하는 호수설 개념도(이강원, 2007: 131).

고대 문헌의 ‘염택’이나 ‘로프노르’는 자신의 탐험 당시의 카라쿠션 호수(프르제발스키의 로프노르)와 로프노르 호수(리히트호펜의 로프노르)를 통칭하는 것이며, 그 ‘로프노르’ 호수는 타립강의 하류에 매달려 약 1500년 정도의 주기로 동남(카라쿠션: 프르제발스키의 로프노르)에서 동북(로프노르: 리히트호펜의 로프노르)으로 시계추처럼 주기적으로 이동하는 호수라는 것이다. 그는 타립강 및 카라쿠션 호수(프르제발스키의 로프노르)의 퇴적(堆積) 상태 그리고 콩첸강 및 로프노르 호수(리히트호펜의 로프노르)의 풍식(風蝕) 상태로 보아, 물이 풍식으로 인해 낮아지고 있는 로프노르 호수(리히트호펜의 로프노르)로 조만간 이동할 것으로 보았다. ‘방황하는 호수설’의 제기는 프르제발스키의 발견과 리히트호펜의 연역 사이의 모순, 그리고 헤딘의 탐험과 코즐로프의 확신 사이의 긴장에 이론적 화해를 놓는 것이기도 하였다. 1902년 11월 헤딘이 5년 만에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 왕립 지리학회에서 강연하였을 때, 그의 이론에 대해 반론을 제기하는 러시아 지리학자는 없었다.

헤딘은 ‘중국·스웨덴 서북과학고찰단(中瑞西北科學考察團)’을 이끌며 중국의 서북지역에서 1927년부터 1935년까지 약 8년의 시간을 보냈다. 1928년 2월 20일 투르판 답사 중에 헤딘은 양(羊) 상인으로부터 1921년 이래 옛 로프노르 호수(리히트호펜의 로프노르)에 물이 차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이로서 헤딘의 약

1500년 정도의 주기로 움직인다는 이론은, 비록 약간의 시간적 오차가 있는 듯이 보였지만, 증명된 것으로 인정되었고, 논쟁은 사실상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헤딘 이후의 ‘로프노르 논쟁’에 대해서는 이강원, 2007: 132-144를 참조할 것).

1896년 이래 헤딘은 매번의 답사 종료 후 그 결과를 여러 언어로 출간하였다. 여러 나라에서 그 공로를 기려 훈장을 수여하였다. 헤딘은 1908년 말 동경을 거쳐 서울에 왔으며, 일본의 주선으로 순종을 면담하였고, 순종은 1909년 1월 서훈 1등급의 팔괘장을 하사하였다. 이는 『순종황제실록』(순종 1년(1908) 12월 21일, 순종 2년(1909) 1월 6일)에도 기록되어 있다. 당시 일본이 헤딘에게 우호적이었던 것은 러시아의 기세를 학술적으로 꺾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바 크다. 그는 동서를 잇는 지역을 연구한 ‘스타 지리학자’였고, 이러한 연유로 히틀러에 의해 1936년 베를린 올림픽 개막 기념 연사로 초청되었다.

미국의 지리학자 엘스워스 헌팅턴(Ellsworth Huntington)은 1905~1906년 사이에 타림분지와 로프노르 지역에서 탐험활동을 하였다. 그는 내륙아시아 역사의 지리적 기초를 해명한다는 계획하에 탐험을 수행하면서, 로프노르의 변화에 대하여 기존의 이론들과 구별되는 ‘팽창-수축 반복설(theory of waxing and waning of Lop-Nor: 영후호설(盈虧湖說))’을 주장하였다. 그의 주장은 기후변화에 의한 빙하의 수축과 팽창이 건조지역의 하천 길이와 호수 크기를 결정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는 이러한 기후변화와 빙하의 팽창·수축이 건조지역의 역사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가 출간한 『아시아의 맥박(The Pulse of Asia)』(1907)이라는 책이름은 내륙아시아 기후변화의 ‘파동성(pulsation)’을 나타내면서 동시에 그에 따른 역사의 ‘역동성(dynamics)’을 묘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1876년 프르제발스키가 로프노르를 ‘발견’한 이래 헤딘이 1500년 주기로 방황하는 호수설을 ‘확인’한 1928년까지, 중국령 중앙아시아를 경과한 탐험대는 42개 팀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개인적인 여행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 각국의 지리학회나 군대의 조직적 지원에 의한 것이었다. 그 중에서도 1927~1935년 사이에 이루어진 헤딘의 중국 서북지역에 대한 조사는 학술조직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그 조사가 당시로부터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외국인의 중국에 대한 현지조사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프르제발스키 이래의 탐험들, 특히 스타인(Stein) 등에 의한 발굴과

그로 인한 문화재 외부 유출은 중국의 지식인들을 격분하게 만들었다. 1927년 제6차 탐험에 나선 헤딩도 그러한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중국인을 포함하는 연합 조사단을 성립한다는 전제하에서 그의 탐험은 허가되었다. 중국 내부의 문화재 혹은 각종 기밀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이러한 형식의 조사연구가 권장되었다. 둘째로, 그러한 형식의 조사를 통하여 중국의 지리학 학술 수준을 높일 수 있었다는 점이다. 헤딩이 이끈 ‘중국·스웨덴 서북과학고찰단’은 당시이나 이후에나 ‘움직이는 대학’으로 불렸으며, 조사과정에 10명의 중국 지리학자들을 참여시켜, 중국 학문의 성장에 기여하였다.

3) 한반도

영국과 러시아가 벌인 ‘그레이트 게임’의 또 다른 장은 한반도였다. 프르제발스키가 1867~1869년의 우수리 탐험 도중 경흥지방을 답사하였고, 1885년에는 거문도 사건이 일어났으며, 1896년 아관파천이 있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영국의 여성 지리학자 버드 비숍(Bird Bishop)은 “몽골리안 민족들의 국가와 지리, 민족적 특징을 연구하는 것”을 자신의 지리학적 연구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목적은 당시 러시아와 대립하고 있던 영국의 중산층에게 호소력이 있었다. 1878년 일본의 홋카이도의 아이누 거주지역, 말레이반도, 중동, 티베트에 대한 답사를 통하여 많은 여행기를 출간하였다.

1894년 이후 4년 동안 4차에 걸쳐 한국을 답사하고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Korea and Her Neighbours)』(1898)을 출간했다. 비숍의 아시아 답사 중 가장 오랜 현지답사와 자료수집, 문헌연구가 온축된 역작이었다. 출판 당일 초판 2천 부가 매진되었고, 그해 5판을 찍었을 정도로 인기가 있었다(이인화, 1994: 539-545). 당시 인기의 배경에는 영국과 러시아가 극동에서 벌인 ‘그레이트 게임’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두만강 너머의 포시에트만 일대까지 답사했는데, 이는 프르제발스키의 답사지역과 중첩된다. 한국 답사와 동시에 진행된 중국 답사를 통하여 그녀는 양쯔강에 대한 답사기를 출간하기도 하였다. 그녀의 저서들에는 당시의 교역상황과 지정학적 관심들이 곳곳에 표명되어 있다.

지리학 박사이자 쾰른신문사 기자였던 독일인 지그프리트 겐테(Siegfried

Genthe)는 1901년 한국을 답사하고 답사기를 쾰른신문에 연재했다. 이 답사기는 『한국-답사기(Kore-Reiseschilderungen)』(1905)라는 이름으로 그가 죽은 후에 출간되었다. 그는 만주의 항구도시들과 서울, 당고개 금광(강원도 금성군 당현), 제주도 등을 답사하였으며, 한라산의 높이(1,950미터)를 측정한 최초의 사람이었다.

2. 세계대전 시기

1) 지정학

제1차 세계대전 전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전에 이르기까지 지리학의 주된 관심은 지정학(geopolitics)에 있었다. 영국의 할포드 맥킨더(Halford Mackinder)와 독일의 칼 하우스호퍼(Karl Haushofer) 등이 대표적인 지정학자들이며, 이들의 관심은 유라시아대륙 특히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 맥킨더는 “역사의 지리적 추축(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였다. 그는 이 논문에서 ‘추축지역(pivotal area)’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추축지역은 “북극해의 체스스카야만-모스크바 서쪽-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이란 고원-텐산 산맥-샤안 산맥-아나디르 산맥 서부”를 연결할 때, 이 연결선의 내측에 해당한다(그림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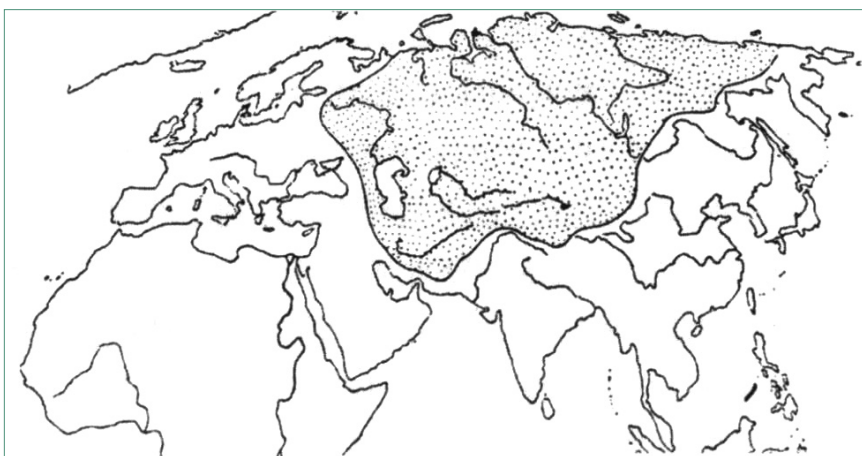


그림 4 내륙 하천과 북극해 유입 하천들의 유역(Mackinder, 2004: 203).

그가 이 지역을 추축지역으로 구분한 자연지리적 근거는 이 지역의 하천이 바다에 이르지 못하는 내륙 하천의 특성을 가지고 있거나, 항해가 불가능한 북극해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자연지리적 기초로 인해 이 지역에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해양세력(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유럽)이 접근할 수 없다는 점을 그는 의식하고 있었다. 역사적으로 이 지역은 유목과 기마민족이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있었고, 유럽에 ‘황화(黃禍: yellow peril)’의 공포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었다. 러·일 전쟁 전야에 그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러시아의 지배를 대신하여 새로운 세력이 추축지역을 지배한다 하여도, 추축지역의 지리적 중요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인이 중국인을 지배하고 조직하여, 러시아 제국을 전복하고, 그 영토를 정복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같은 황화는 세계를 위협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 방대한 대륙의 자원을 튼튼한 배경으로 하여 넓은 해양을 덧붙이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추축지역의 거주자인 러시아가 아직 누리지 못한 이점입니다(Mackinder, 2004: 216-217).

추축지역의 바깥쪽에 인접하여 그는 ‘내측 반월호형 지대(inner crescent)’를 상정하였는데, 유라시아 대륙 중에서 하천이 대양에 이르는 지역이 그에 해당한다. 그는 이 지역을 해양세력의 힘이 하천을 통하여 미칠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았다. 서유럽·그리스·터키·이란·인도·인도차이나·중국·한국 등이 그에 해당한다. 그는 내측 반월호형 지대 바깥쪽에 다시 ‘외측 반월호형 지대(outer crescent)’를 상정하였는데, 미국을 포함한 북미·남미·남아프리카·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등이 그에 해당한다. 이러한 지역구분에서 아시아는 추축지역과 내측 반월호형 지대로 양분된다(그림 5).

1919년 맥킨더는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Democratic Ideals and Reality)』(이병희 역, 2004)이라는 저서를 출간한다. 이 책의 출간 목적은 지리학적 시각에서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는 것이었다. 여기서 그는 추축지역 개념에 더하여 ‘심장지역(heart land)’이라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이는 기존의 추축지역의 범위에 발트해·다뉴브강 중하류·흑해·소아시아·아르메니아·이란·티베트·몽골 등을 더한 것이다. 이 지역에는 대하천 유역의 광대하고도 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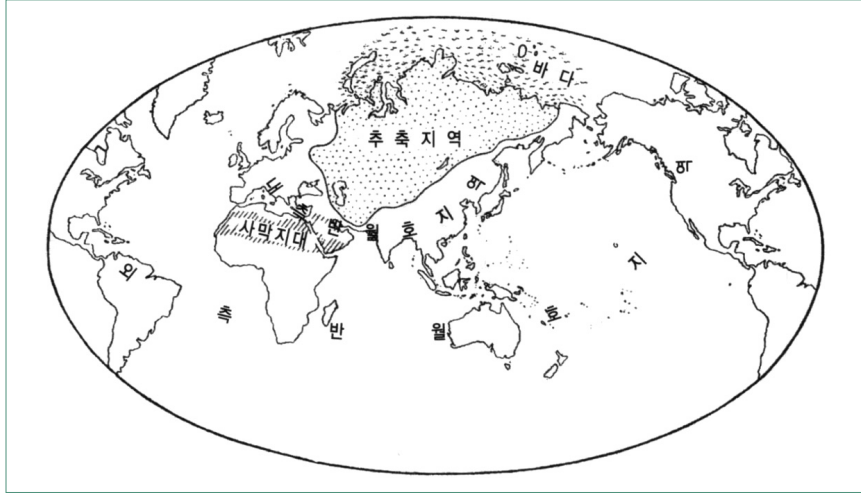


그림 5 세력의 자연적 중심지(Mackinder, 2004: 213).

옥한 저지대가 있으며, 유용한 자원이 많아서, 비록 대양과 접촉하기는 어렵지만, 긴 안목으로 볼 때는 대제국이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후 열린 강화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충고한다.

어느 로마 장군이 전쟁에 승리하고 모국으로 돌아와 만인의 열렬한 환영을 받는 개선식에서, 그의 전차 뒤에 서 있던 노예가 장군에게 귓속말로 속삭였다. '당신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소.' 우리의 정치가 강화회담 석상에서 패자와 협상할 때, 어느 쾌활한 수호천사가 그에게 시의적절하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고 상상해보라: "동유럽을 지배하는 자가 심장지역을 지배하고, 심장지역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 섬을 지배하고, 세계 섬을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Mackinder, 2004: 126-127)

여기서 심장지역은 아시아의 약 1/2의 면적과 유럽의 약 1/4의 면적을 포괄한다. 심장지역의 대부분은 아시아였다. '세계 섬(the World Island)'은 연륙된 대륙인 유라시아와 아프리카를 말하며, 그 중에서도 핵심은 유라시아였다. 하나의 예로, 인도는 심장지역 내지 추축지역 세력인 러시아가 유라시아의 남부지역으

로 팽창하는 것을 막아야 할 필수적인 보루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영국은 인도를 계속 지배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마찬가지로, 아시아의 다른 주변지역(rimland)도 러시아의 팽창을 막는 보루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러시아에 대항하는 열강의 식민지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맥킨더의 생각은 당시 영국뿐만 아니라 독일에서도 중요하게 받아들여져, 독일의 지정학자들과 정치가들 역시 이에 기초하여 세계전략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독·소 불가침조약은 맥킨더의 생각을 독일인들이 받아들인 결과물이었다.

세계대전 시기 승전국의 지정학자가 맥킨더라면, 패전국의 대표적인 지정학자는 칼 하우스호퍼다. 독일 육군 장교였던 그는 1908년 일본 육군을 연구하라는 명령을 받고, 지중해-홍해-인도양을 거쳐 일본으로 들어왔으며, 돌아갈 때에는 시베리아를 횡단했다. 1908~1910년 사이에 주일 독일대사관에서 근무하였으며, 영어, 불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까지 구사할 줄 알았던 그는 일본에 관한 저술을 통하여 학자로서 명성을 얻게 되었다(김광채, 1977: 194).

그의 최초의 저작은 1913년 『대일본: 대일본의 국방력, 세계적 지위 및 장래에 관한 고찰(Dai Nihon: betrachungen über Gross-Japans Wehbkraft, Weltstellung und Zukunft)』이었다. 여기서 그는 일본의 팽창과정, 팽창의 기본방향 및 장애요인을 분석하였다. 축, 성장점, 힘의 장, 민족의 압력 등의 개념이 구사되었는데, 메이지 이래의 일본의 인구증가를 민족의 압력으로, 성장점으로는 다렌(뤼순, 튀타)을, 축으로는 조선반도를, 힘의 장으로는 만주를 상정하였다. 1914년 하우스호퍼는 뮌헨대학 박사학위논문으로 “일본 및 일본 세력권의 지리적 발전 그리고 전쟁 및 국방정책의 영향력을 통해 그것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독일적 관심(Der Deutsche Anteil an der geographischen Erschlieszung Japan und subjapanischen Erdraums, und deren Foerderung durch den Einfluss von Krieg und Wehrpolitik)”을 제출하여, 지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 취득 후 군에 복귀하여 제1차 세계대전에 참모로 참전하였으며 장군으로 진급하였다. 이 과정에서 루돌프 헤스(Rudolf Hess)를 부관으로 데리고 있었으며, 이것이 인연이 되어 후에 히틀러와 교분을 쌓게 된다(김광채, 1977: 194).

하우스호퍼는 제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지리학 교수가 되어 뮌헨대학에서 지정학을 가르치면서, 1924년부터 『지정학보(Zeitschrift für Geopolitik)』를 발간하였다.

히틀러는 이 학술지를 구독하면서 강한 인상을 받았으며, 1933년 집권 후 하우스호퍼를 독일학술원 원장으로 임명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하우스호퍼는 전범으로 체포되었으며, 1946년 그의 부인과 함께 자살로 생을 마감하였다.

하우스호퍼의 지정학은 ‘생활공간(Lebensraum)’, ‘자급자족(Autarkie)’, ‘범지역(Panregions)’, ‘경계(Grenzen)’ 등을 핵심개념으로 삼고 있었다(Gyorgy, 1944: 175-193). 유기체로서의 국가와 민족은 그 성장에 알맞은 공간을 확보해야 하며, 그것의 현실적 양태는 ‘피와 땅(Blut und Boden)’의 생명적 결합체, 곧 민족의 영역과 국가의 영역의 일치에 있었다. 여기서 ‘순수한 단일민족의 영구적 공간’이라는 이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공간은 자급자족적 공간이어야 하며, 자급자족적 공간이 확보되지 못할 때에는 민족과 국가의 성장에 적절한 범지역을 세력권으로 하여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아시아에서 이러한 범지역은 주로 아대륙 규모의 형태를 가진 것으로 보았다. 생활공간과 범지역은 적절한 경계를 가져야 하며, 그것은 민족국경, 인종국경의 형태를 가진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념들은 일본이 ‘대동아공영권(大東亞共榮圈)’이라는 지정학적 구상을 설정하는 데 이론적 기초로 사용되었다.

2) 지지연구와 아시아 사회지리 특성 연구

하우스호퍼의 『지정학보』 동인들 중의 하나인 헤르만 라우텐자흐(Hermann Lautensach)는 1933년 3월부터 11월까지 제주도에서 백두산에 이르는 한국 전역을 총 4회에 걸쳐 답사하여, 『한국: 답사와 문헌에 기초한 지역지리(Korea: Eine Landeskunde auf Grund eigener Reisen und der Literatur)』(1945; 김종규 외 역, 1998)를 출간하였다. 이 책 출간 이전에 그는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 끝인 포르투갈과 이베리아 반도에 관한 지역지리서를 서술하였는데, 비교지리학적 연구를 위하여 같은 위도에 위치한 유라시아대륙의 동쪽 끝의 한국을 연구한 결과물이 이 책이다. 이 책의 ‘제4부 일본의 해외속령 한국’은 당시 일본과 동맹국 관계에 있던 독일인의 입장에서 서술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그는 “이전에 서구에서 저술된 한국에 관한 문헌은 여행을 기초로 한 개략적인 느낌을 기술한 것이고, 일본인들이 행한 연구는 학술적인 것이기는 하나 지역계획의 성향을 지닌 불명료

한 것”(Lautensach, 1998: 96)이었다면서, 학문적으로 깊이 있게 지리학적 연구를 시도하는 것이 자신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그의 분명한 목적이 달성되어, 이 책으로 그는 학계에서 ‘논쟁의 여지가 없는 지역지리 연구의 대가’라는 칭호를 받았다(김종규 외, 1998: 11).

세계대전 시기는 지정학적 연구가 흥미하였지만, 한편으로 지리학자들이 아시아 경험을 통하여 전후 새로운 지리학적 지평을 열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많은 지리학자들이 전쟁에 동원되어 아시아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아시아 지역에서 근무하였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전후 독일 사회지리학의 기초를 놓은 한스 보벡(Hans Bobek)을 들 수 있다. 그는 제2차 세계대전 전 이란을 연구하다가 전쟁 중에 징집되어 이 지역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게 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오리엔트의 사회경관들(social landscapes of Orient)’이라는 연구주제를 구상하고(Buttimer, 1983: 171-180), 전후에 독일 사회지리학의 이론적 기초를 제시하였다.

그는 오리엔트 지역 나아가 아시아의 사회경관적 특징을 ‘임대자본주의(rent capitalism)’라는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임대자본주의는 기원전 2천 년 무렵부터 존재해왔다. 이와 함께 가장 오래된 도시체계가 발달하였지만, 이 도시체계가 유럽에서의 자본주의 발달과는 달리 생산의 장소가 되지 못했다. 오히려 임대자본주의는 지배계급 대부분이 유목민의 혈통을 가진 도시 거주민이었지만, 농업적 생산이 여전히 지배적이었다. 도시와 농촌 간의 권력관계는 농촌 토지의 거의 대부분이 도시민들의 수중에 있으며, 영농을 통해 얻는 수익의 거의 대부분도 이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 기초한다. 하지만 임대자본주의의 핵심요소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수확체감의 지리적 계기’에 기초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철저한 임대자본주의의 이상형은 가능한 한 많은 농부들이 장기부채의 상황에 빠져들게 하는 것인데, 가령 이들이 해마다 힘껏 빛을 상환할지라도 이미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처음 진 빛이 늘어나 이를 결코 갚을 수 없게 하는 것, 이것이 그 이상형이라 할 수 있다. 서구의 생산적 자본주의와 비교해보면, 이러한 사회와 경관의 관계를 지닌 임대자본주의는 역동적 성격이 아닌 정체적 성격을 띠는다고 할 수 있다. 보벡은 이러한 점을 지표경관에서, 첫째로 도시의 규모는 오직 지배자가 가진 권력이 어느 정도까지 확대되어 있는

가에 좌우되며, 둘째로 농촌지역은 도시에 거주하는 지주계급의 폭압적 탐욕으로 말미암아 내생적 경제발전을 이끌어낼 만한 여력을 갖지 못하며, 따라서 빈곤과 침체로부터 헤어날 수 없다는 점을 통해 입증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도시-농촌 관계에 있어 호혜성의 결여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도시의 발전도 저해된다고 지적한다(Werlen, 2003: 123-124).

보백의 임대자본주의 개념은 전후 아시아에 대한 원조에 있어서 많은 교훈을 주었다. 도시에 위치하는 지주계급을 통한 거점식 원조방식은 결국 고리대로 이용되어 임대자본주의의 악순환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그의 논리를 연장하자면, 바람직한 원조방식은 주민의 자발적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과 인프라 건설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제3세계 원조방식은 대부분 이 방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IV. 냉전~탈냉전 시기 지리학의 아시아 연구

1. 냉전 시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동시에 형성된 냉전체제는 지리학자들의 아시아 연구에 몇 가지 큰 영향을 미쳤다. 첫째, 세계대전 시기에 지리학자들에 의해 탐구된 지정학은 패전국에서는 ‘전범학문(戰犯學問)’으로 몰렸고, 전승국의 지정학은 더 이상 지리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지 않고 각국의 국방이나 정보 관련 조직에 의해 수행되었다. 특히, 종전 후 미국의 전략가들은 맥킨더의 생각에 기초하여 ‘주변지역 이론(rimland theory)’(Spykman, 1944), ‘봉쇄정책(containment policy)’ 등을 구상하고 실천에 옮겼다. 반면, 종전 후 지리학자들은 지정학에 대해 침묵을 지키게 되었으며, 코헨(Cohen, 1973) 등 소수의 학자들만이 이론화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미국의 지정학적 견해는 정부의 정책 성명의 형태를 띠게 되었고, 학문적 노력이 부재한 가운데 ‘이론’의 지위를 누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객관적인 ‘진실’인 것과 같은 권위를 획득했다. 먼저 조지 케넌(George Kennan)이 ‘봉쇄정책’을 주장했고, 트루먼 행정부 시절 국가안보회의가 NSC-68 문서를

통해 공산주의와의 세계적 투쟁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의심스러운 ‘도미노 이론’에 의해 뒷받침되었다(Flint, 2007: 52-53). 이러한 ‘이론’과 정책의 도출 장소, 실천의 장 역시 아시아가 핵심적인 지역이었다. 훗날 브레진스키(Brezinski, 1997)는 유라시아를 ‘거대한 체스판(grand chessboard)’으로 묘사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에게 이 지역의 전략적 가치를 잊지 말라고 당부하였다.

둘째,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과 더불어 독립한 식민지 국가들은 과거 식민종주국 지리학자들의 답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다. 또한 신생독립국들의 정정 불안은 지리학자들의 발걸음을 쉽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중요한 저작이 출간되었는데, 이는 부분적인 답사 및 세계대전 중에 획득한 정보에 의존한 것이었다. 서술의 규모 역시 아대륙 규모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아시아 전체를 단위로 한 지역지리학적 서술로 크레씨(Cressy, 1963), 스펜서와 토머스(Spencer and Thomas, 1971)의 저서가 출간되었다. 서남아시아에 대해서는 크레씨(Cressy, 1960)의 지역지리 입문서, 롱리그(Longrigg, 1970)의 사회지리학적 연구, 피셔(Fisher, 1978)의 지역지리서, 뷰먼트 등(Beaumont et al., 1988)의 지역지리 입문서 등, 아대륙 규모의 지역지리학적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드라이스데일(Drysdale, 1985)의 중동과 북아프리카에 대한 정치지리학적 연구는 지금까지도 필독서로 읽히고 있다. 대신 이 지역의 정정 불안으로 국가 단위나 지역 혹은 도시 단위의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스페이트와 리어먼스(Spate and Learmonth, 1971)에 의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엘-라시드(Er-Rashid, 1977)에 의해 방글라데시의 지역지리학적 단행본이 발간되었다.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피셔(Fisher, 1966)에 의해 인문지리학적 지역지리 연구가 수행되었고, 맥기(McGee, 1967)에 의해 도시사회지리학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특히 맥기의 연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리학에서 개발된 도시체계 및 도시사회지역 분석의 방법에 영향을 받았으며, 제3세계 도시연구의 선구로 평가받았다.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전체를 아우르는 지역지리학적 저술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신 일본과 중국에 대한 지역지리학적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일본에 관한 것으로는 미군의 점령지 오키나와에 대한 글랙켄(Glacken, 1955)의 연구, 트레와다(Trewartha, 1965), 맥도널드(MacDonald, 1985)의 지역지리적 저술이 있고, 콘호서(Kornhauser, 1982)의 도시-산업발전의 지리적 배경에 대한 단행본이 있다.

셋째, 종전에 뒤이어 형성된 냉전 시기에 지리학자들은 미·소 양진영을 답사하는 데 제한을 받았다. 따라서 냉전의 치열한 격전장이었던 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적었다. 이 시기 러시아의 동부 및 중앙아시아, 중국 등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운데, 이는 이 지역들이 사회주의권에 편입되어 있었고, 냉전으로 인해 지리학자들의 현지답사가 어려웠다는 점에 기인한다. 구소련에 대해서는 라이돌프(Lydolph, 1990)의 지역지리가 많이 읽혔다. 스투와트(Stewart, 1992)는 구소련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및 환경정치에 대해 다루었는데, 이후에 탈사회주의 국가들의 환경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필독서가 되었다. 1960년 이래 발행된 학술지 『유라시아 지리학과 경제학(Eurasian Geography and Economics)』은 특히 구소련 지역에 대해 연구하는 지리학자들의 논의의 장이 되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개혁개방 이후 연구서들이 출간되기 시작했으며, 팬넬과 마(Pannell and Ma, 1983), 스밀(Smil, 1984)의 연구가 주목받았다. 특히 스밀의 연구는 중국의 환경문제에 대해 처음으로 탐구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넷째, 지리학은 이 시기에 ‘과학화’를 모토로 하여 계통지리학을 발전시켰으며, 논리실증주의에 입각하여 국내적이고 공간분석적인 연구를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제3세계의 원조 정책과 더불어 아시아 일부 국가의 공간구조 문제(과잉도시화, 지역격차)에 대한 연구가 있었지만, 대부분 국가나 지역이 ‘사레지역’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있었다. 냉전의 말기에 ‘아시아의 4마리 용’에 대한 관심, 중국의 개혁개방에 대한 관심이 지리학에서 진행된 대표적인 아시아 연구라고 할 수 있다.

2. 탈냉전 시기

탈냉전 이후 지리학의 특징은 1950년대 이후 진행된 ‘과학화’의 성과를 기반으로, 인문지리학에서는 다양한 사회이론을 흡수하였고, 자연지리학에서는 환경론(environmentalism)과 결합된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데 있다. 동시에 지정학에 대한 비판적 재해석이 시도되었고, 그에 따라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이 등장하게 되었다. 탈냉전 시기 지리학의 아시아 연구에 있어 중요한 변화는 냉전의 해체가 지리학자들의 비교적 자유로운 현지답사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아시아의 각 지역에 대한 도시 및 경제지리학적 연구들이다. 인문지리학의 여러 분야 중 ‘과학화’와 ‘계량혁명’의 세례를 가장 확고하게 받은 분야는 도시지리학과 경제지리학이며, 이는 아시아 연구에도 반영되었다. 특히,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및 인도의 비약적인 경제성장과 공간구조 변화는 세계경제지리의 판도를 새롭게 구성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도시 및 경제지리학자들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올랐다. 웨이트만(Weightman, 2006)의 남아시아·동아시아·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역지리는 냉전시기 이 지역 지역지리의 필독서로 꼽혔던 스펜서와 토머스(Spencer and Thomas, 1971), 스페이트와 리어먼스(Spate and Learmonth, 1971)를 지리학의 변화된 내용에 맞게 현대적으로 계승하는 측면이 있다. 서남아시아에 대한 도시 및 경제지리학적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많은 지리학적 연구가 정치지리학 내지 지정학적인 주제에 할애되고 있다. 남아시아의 경우 인도의 경제적 부상으로 기존의 지정학적인 연구보다 경제지리학적인 연구가 많아지고 있다. 인도의 도시 및 경제지리에 대해서는 『환경과 계획 A(Enviroment and Planning A)』 27권 12호(1997)에서 특집으로 다루어졌다. 이후 인도에 대한 도시 및 경제지리학적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맥기(McGee, 1995)의 ‘메가급 도시 지역들(Mega-Urban Regions)’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1960년대 이래 그의 동남아시아 도시사회지리에 대한 연구를 총결산하고 있다.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르 헤론과 박(Le Heron and Park, 1995)의 태평양 연안 아시아의 경제지리 재편성 연구, 싯(Sit, 1995)의 중국 대도시 연구, 고바츠(Gaubatz, 1996)의 중국 변경도시 연구 등이 있다.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이 지역의 도시 및 경제지리학적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아시아 탈사회주의 지역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샤프(Shaw, 1995; 1999)의 지역지리 입문서가 대표적이며, 베이터(Bater, 1996)의 탈사회주의 이후의 지역체계의 변화에 대한 연구, 카이저(Kaiser, 1994)의 구소련과 러시아에서 민족주의의 공간적 양태에 대한 연구가 있다. 중국에 대해서는 캐논(Cannon, 1990), 스미스(Smith, 1991), 리밍(Leeming, 1993), 시에(Hsieh, 2004)의 개혁개방 이후 지역구조 변화에 대한 입문서, 린지와 포브스(Linge and Forbes, 1990), 린지(Linge, 1997), 마스톤(Marton, 2000)의 공간경제 연구, 벡 등(Veeck et al., 2007)의 개혁개

방 이후 사회지리학적 변화에 대한 연구, 싱(Hsing, 2010)의 도시 토지와 재산권의 정치에 관한 연구가 있다. 현재 중국에 대한 지리학적 연구는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셋째, 아시아 각 지역에 대한 인간생태학 혹은 정치생태학적 연구들이다. 이브스와 메세를리(Ives and Messerli, 1989)의 히말라야 산지, 루이스(Lewis, 1992)의 필리핀, 스티븐스(Stevens, 1993)의 네팔, 비치코바(Bychkova, 2001)의 시베리아 사하공화국에 대한 연구들이 이에 속한다. 인간생태학 혹은 정치생태학적 연구들은 인문지리학과 자연지리학의 공접면을 이루는 중요한 분야이다. 비록 참여관찰이라는 방법상의 문제로 인해 도시 및 경제지리학에 비해 연구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문화의 이해 및 환경문제의 중요성과 더불어 새로이 각광받는 분야이다.

넷째, 아시아에 대한 정치지리학 내지 지정학적 연구들이다. 서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중동 지역에서 ‘파편지대(shatter belt)’의 소멸에 대한 코헨(Cohen, 1992)의 논문이 탈냉전과 지정학의 재발견에 단초를 제공하였다. 앤더슨(Anderson, 2000)의 중동 지정학에 대한 연구도 대표적이다. 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채프먼(Chapman, 2003)의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의 지정학에 대한 연구가 대표적이다. 동남아시아나 동아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연구들은 많지 않은데, 이는 아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이 지역이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급속한 경제적 성장을 반영한 경제지리학적 연구들이 이 지역에 대한 관심을 보상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이 처한 현실에 비추어 지정학적 연구는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

V. 결론을 대신하여: 새로운 의제들

한국지리학이 국내에 대한 연구를 넘어 아시아 지역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것은 1990년대 중반부터이며, 대부분 서울대학교 지리학과와 박사학위 논문들을 통하여 출발되었다. 여기에는 탈냉전 및 인접국 중국의 부상이라는 국제질서의 변화 그리고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에 대한 요청’(류우익, 1986)이라는 학문적 문제제기가 그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

1990년대 중반 이래 대략 15년이 경과하는 동안 중국, 일본, 동남아, 러시아 동부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지역적으로 아시아의 다른 지역까지 연구가 확장될 필요가 있다. 더불어, 향후 아시아에 대한 한국의 지리학적 연구가 다음과 같은 의제들에 주목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첫째, 아대륙 규모 내지 국가 단위의 지지 혹은 지역지리가 서술될 필요가 있다. 지지 내지 지역지리는 연구의 가설로서 서술될 수도 있고 결과물로서도 서술될 수 있다. 한국의 지리학자들이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못한 지역들(서남아시아, 남아시아 등)이 있지만, 외국의 업적을 참조하여 연구를 위한 가이드로서 지지 내지 지역지리서를 작성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한국 지리학계의 특이한 현상 중의 하나는 그렇게 교류가 많았던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아직 한국인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지지나 지역지리서가 없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 대해서 성급하게 지지나 지역지리서를 희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겠지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둘째, 인문지리학은 지정학에 대한 재해석과 이에 기반한 연구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제국주의 시기나 세계대전 시기의 지리학이 지정학으로 인해 ‘전범’의 오명을 썼지만, 그러한 평가가 상당부분 오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지표공간이 정치적 힘에 주는 영향과 정치적 힘이 지표공간에 주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냉전 이래 지리학자들은 ‘순수’ 내지 ‘중립성’의 방패 뒤에서 정치적 힘의 문제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익숙해져 있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희토류의 분포와 개발의 문제, 석유나 천연가스 수송 루트의 문제, 국가 간 교통 인프라의 문제, 국제하천의 개발과 이용, 항만과 항구 개발, 영토분쟁 등, 아시아에서 새로이 부상하는 공간적 사안을 분석하는 데 미흡한 측면이 있다. 지정학적 관점의 세례를 받고 연구하는 것이 학문적 순수성을 훼손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 힘은 지표공간을 조형하는 큰 요인이고, 지표공간은 정치적 힘을 틀 지우기 때문이다. 최근의 ‘비판지정학(critical geopolitics)’과 ‘지정경학(geopolinomics)’에 대한 논의들이 이러한 연구에 하나의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자연지리학은 환경론(environmentalism)에 입각한 연구의 방향을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시아의 환경문제는 단순한 ‘오염’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표공간의 자연적 형질 자체를 바꾸는 위험한 차원에 이르고 있다. 기후변화의 지역적 다양성 문제, 대하천에 건설된 댐의 문제, 대규모로 사라진 습지의 문제, 사막화, 원자력 시설의 배치와 불안정성으로 인한 국가 간 갈등 등을 예로 들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아시아에서 국가와 지역을 넘나드는 환경문제의 등장은 자연지리학의 연구 스케일이 다양해질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넷째, 지도학이나 지리정보체계 분야 역시 아시아의 저개발국가에 대한 연구 지원 등을 통하여 경험을 전수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미군이 아프카니스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의 수중에 있던 지도는 100년 전 헤딘의 것이었다. 지금 전쟁의 와중에 많은 지리학도들이 인턴으로 동원되어 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정확한 지도는 오폭을 막고 무고한 인명을 전쟁의 살상으로부터 보호한다. 미군이 1999년 유고 주재 중국 대사관을 오폭한 사건은 낡은 지도가 원인이었다.

다섯째, 지정경학적 아틀라스(geopolinomical atlas)가 제작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단순한 지형도가 아니라, 주요 지형, 인구이동, 자원, 인프라, 산업 배치 등에 대한 지도화 작업이 필요하다. 유럽이나 러시아의 서점에서 지정경학적 아틀라스는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작업들은 학술적 성과를 대중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다. 지도는 사실의 기록이기도 하지만 상상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최근 젊은이들에게 ‘세계를 향해 나가라’고 부추기지만, 사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보다도 세계지도를 보지 않는다. 교육과정에 없기 때문이다.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는 이들에게 무작정 어디로 가란 말인지, 의아할 때가 있다. 그들에게 지도를 쥐어줄 필요가 있다.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요청하는 글의 한 문단은 다음과 같다.

[우리가 해야 할 지역지리학은] 우리 국토의 매듭과 이음새와 흐름이 또렷이 되살아나는, 그리고 그곳에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과 뜻이 어우러져 앙상블을 이루는 위에 내일이 투시되는 그런 지리학이어야 한다고 믿는다(류우익, 1986: 262).

이 문단에 기대어, 오늘, “아시아라는 공간의 매듭과 이음새와 흐름이 또렷이 되살아나는, 그리고 그곳에 무리지어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생각과 뜻이 어우러져 앙상블을 이루는 위에 내일이 투시되는 그런 지리학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것이 무망한 일만은 아닐 것이다.

투고일: 2011년 5월 9일 | 심사일: 2011년 5월 24일 | 게재확정일: 2011년 6월 14일

참고문헌

- 구동희. 2011. “우리나라 세계지역구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국토지리학회지』 45권 1호, 41-58.
- 김광채. 1977. “Karl Haushofer의 지정학사상에 관한 연구.” 『지리학연구』 3권 1호, 193-204.
- 김종규 · 강경원 · 손명철. 1998. “옴긴이 해제.” H. Lautensach 저. 김종규 · 강경원 · 손명철 역. 『코리아-답사와 문헌에 기초한 1930년대 한국의 지리·지지·지형』, 911-914. 서울: 민음사.
- 류유익. 1986. “현대지리학의 이론과 실제-지역지리학의 르네상스를 위한 소고.” 『현대사회』 24권, 246-263.
- 이강원. 2000. 『중국 변강에서 민족과 공간의 사회적 구성: 어문춘족 사회의 다민족화와 정체성의 정치』. 지리학논총 별호 37. 서울: 서울대학교 지리학과.
- _____. 2007. 『사막중국: 중국의 토지이용 변화와 사막화』. 서울: 폴리테이아.
- 이인화. 1994. “역자해제.” Bishop, E. B. 저. 이인화 역. 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539-562. 서울: 살림.
- 이정만. 1997. “인간생태학적 지역연구 방법론에 관한 고찰.” 『지리학논총』 29호, 1-23.
- 이희연. 1991. 『지리학사』. 서울: 법문사.
- Anderson, Ewan W. 2000. *The Middle East: Geography and Geopolitics*. London: Routledge.
- Bater, J. H. 1996. *Russia and the Post-Soviet Scene: A Geographical Perspective*. New York: John Wiley & Sons.
- Beaumont Peter, et al. 1988. *The Middle East: A Geographical Study*. 2nd ed. New

- York: John Wiley & Sons.
- Bishop, E. B. 저. 이인화 역. 1994.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서울: 살림.
- Bittimer, A. 1983. *The Practice of Geography*. London: Longman.
- Bradshaw, M., G. White, J. Dymond, and E. Chako. 2009. *Contemporary World Regional Geography: Global Connections, Local Voices*. 3rd ed. London: McGraw-Hill.
- Brezinski, Zbigniew 저. 김명섭 역. 2000.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 서울: 삼인.
- Bychkova, Jordan B. and T. G. Jordan-Bychkov. 2001. *Siberian Village: Land and Life in the Sakha Republic*.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Cannon, Terry and Alan Jenkins. 1990. *The Geography of Contemporary China: The Impact of Deng Xiaoping's Decade*. London: Routledge.
- Chapman, Graham P. 2003. *The Geopolitics of South Asia: From Early Empire to the Nuclear Age*. 2nd ed. Brookfield: Ashgate.
- Cohen, S. B. 1973. *Geography and Politics in a World Divided*. 2nd e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Cressy, George B. 1960. *Crossroads: Land and Life in Southwest Asia*. Philadelphia: J. B. Lippincott.
- _____. 1963. *Asia's Lands and Peoples: A Geography of One-Third of Earth and Two-Thirds of Its People*. 3rd ed. New York: McGraw-Hill.
- de Blij, H. J. and P. O. Muller. 2010. *Geography: Realms, Regions, and Concepts*. 14th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Drysdale, A. and G. H. Blake. 1985.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A Political Geograph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English, P. and J. Miller 1989. *World Regional Geography: A Question of Place*.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 Er-Rashid, H. 1977. *Geography of Bangladesh*. Boulder, Colorado: Westview Press.
- Fisher, Charls A. 1966. *Southeast Asia: A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Geography*. 2nd ed. New York: E. P. Dutton.
- Fisher, William B. 1978. *The Middle East: A Physical, Social and Regional Geography*. 7th ed. London: Methuen.
- Flint, Colin 저. 한국지정학연구회 역. 2007. 『지정학이란 무엇인가』. 서울: 길.

- Gaubatz, Piper Rae. 1996. *Beyond the Great Wall: Urban Transformation on the Chinese Frontier*.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Genthe, S. 저. 권영경 역. 2007. 『독일인 겐테가 본 신선한 나라 조선, 1901』. 서울: 책과 함께.
- Glacken, C. J. 1955. *The Great Loochoo: A Study of Okinawan Village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oncharov, I. A., N. M. Prejevalsky, and D. P. M. Delotkevicha 저. 심지은 편역. 2006. 『러시아인, 조선을 거닐다』. 서울: 한국학술정보.
- Grataloup, Christian 저. 이대희·류지석 역. 2010. 『대륙의 발명』. 서울: 에코리브르.
- Gyorgy, A. 1944. *Geopolitics: The New German Scienc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Hartshorne, Richard 저. 한국지리연구회 역. 1998. 『지리학의 본질, I·II』. 서울: 민음사.
- Hedin, S. 1899. *Through Asia*. London: Harper and Brothers.
- _____. 1904. *The Tarim River: Scientific Results of a Journey in Central Asia, 1899~1902. Vol. 1*. Stockholm: Lithographic Institute of the General Staff of the Swedish Army.
- _____. 1905. *Lop-Nor: Scientific Results of a Journey in Central Asia, 1899~1902. Vol. 2*. Stockholm: Lithographic Institute of the General Staff of the Swedish Army.
- Hopkirk, Peter 저. 정영목 역. 2008. 『그레이트 게임: 중앙아시아를 둘러싼 숨겨진 전쟁』. 서울: 사계절.
- Hsieh, Chiao-Min and Max Lu. 2004. *Changing China: A Geographical Appraisal*. Boulder: Westview Press.
- Hsing, You-Tien. 2010. *The Great Urban Transformation: Politics of Land and Property in China*.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Huntington, S. 저. 이희재 역. 1997. 『문명의 충돌』. 서울: 김영사.
- Ives, Jack D. and Bruno Messerli. 1989. *Himalayan Dilemma: Reconciling Development and Conservation*. London: Routledge.
- Kaiser, R. J. 1994. *The Geography of Nationalism in Russia and the U.S.S.R.*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rnhauser, D. H. 1982. *Japan: Geographical Background to Urban-Industrial Development*. 2nd ed. London: Longman.

- Lautensach, H. 저. 김종규 · 강경원 · 손명철 역. 1998. 『코레아-답사와 문헌에 기초한 1930년대 한국의 지리 · 지지 · 지형』. 서울: 민음사.
- Le Heron, Richard and Sam Ock Park. 1995. *The Asian Pacific Rim and Globalization: Enterprise, Governance, and Territoriality*. Brookfield: Ashgate.
- Leeming, Frank. 1993. *The Changing Geography of China*. Cambridge, Mass.: Blackwell.
- Lewis, M. 1992. *Wagering the Land: Ritual, Capital, and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the Cordillera of Northern Luzon, 1900-1986*.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Linge, Godfrey J. R. and D. K. Forbes. ed. 1990. *China's Spatial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inge, Godfrey J. R. ed. *China's New Spatial Economy: Heading Towards 2020*.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Longrigg, Stephen H. 1970. *The Middle East: A Social Geography*. 2nd ed. Chicago: Aldine.
- Lydolph, Paul E. 1990. *Geography of the U.S.S.R*. Elkhart: Misty Valley Publishing.
- MacDonald, D. A. 1985. *A Geography of Modern Japan*. Ashford: Paul Norbury.
- Mackinder, H. J. 1904. "The Geographical Pivot of History." *Geographical Journal* 23, 421-437.
- _____. 이병희 역. 2004. 『민주주의의 이상과 현실』. 공주: 공주대학교 출판부.
- Martin, G. J. and P. E. James. 1993. *All Possible Words: A History of Geographical Ideas*. 3r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Marton, Andrew M. 2000. *China's Spatial Economic Development: Restless Landscapes in the Lower Yangzi Delta*. London: Routledge.
- McGee, Terence G. 1967. *The Southeast Asian City: A Social Geography*. New York: Praeger.
- _____. 1995. *The Mega-Urban Regions of Southeast Asia*. Vancouver: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 Pannell, Clifton W. and Laurence J. C. Ma. 1983. *China: The Geography of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New York: Halsted Press.
- Russell, R. and F. Kniffen. 1951. *Culture Worlds*. London: The Macmillan Company.

- Shaw, Denis J. B. 1999. *Russian in the Modern World: A New Geography*. Malden: Balckwell.
- _____. ed. 1995. *The Post-Soviet Republics: A Systematic Geography*. New York: John Wiley & Sons.
- Sit, Victor F. S. 1995. *Beijing: The Nature and Planning of a Chinese Capital City*. New York: John Wiley & Sons.
- Smil, Vaclav. 1984. *The Bad Earth: Environmental Degradation in China*. Armonk, New York: M. E, Sharpe.
- Smith, Christopher J. 1991. *China: People and Places in the Land of One Billion*. Boulder: Westview Press.
- Spate, Oskar H. K. and Andrew T. A. Learmonth, 1971. *India and Pakistan: A General and Regional Geography I · II*. London: Methuen.
- Spencer, Joseph E. and William L. Thomas. 1971. *Asia, East by South: A Cultural Geography*. 2nd ed. New York: John Wiley & Sons.
- Spykman, N. 1942. *America's Strategy in World Politics*. New York: Harcout Brace.
- Stevens, S. F. 1993. *Claiming the High Ground: Sherpas, Subsistence, and Environmental Change in the Highest Himalay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tewart, John Massey. ed. 1992. *The Soviet Environment: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Tezuka, Akira 저. 정암 역. 1998. 『근대지리학의 개척자들』. 서울: 한올아카데미.
- Trewartha, G. T. 1965. *Japan: A Geography*. Madison: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 Weightman, B. A. 2006. *Dragons and Tigers: A Geography of South, East, and Southeast Asia*. 2nd ed. Hoboken: John Wiley & Sons.
- Werlen, B. 저. 안영진 역. 2003. 『사회공간론: 사회지리학 이론 발달사』. 서울: 한올아카데미.
- Wheeler, Ir. J. and J. Kostbade, 1969. *Regional Geography of the World*. 3rd ed. New York: Holt, Reinhart and Winston.

Abstract

Trends and Issues of Modern and Contemporary Geographers' Studies on Asia

Kang-Won Le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s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character of modern and contemporary geographers' studies on Asia and to suggest some agenda for studies on Asia for future Korean geographers. First, the spatial boundary and the classification of sub-regions of Asia are discussed. Second, the geographers' studies on Asia done during the period of imperialism and the World Wars are reviewed in the geopolitical and academic context, especially Richthofen's China study, the Lop-Nor debate, and geopolitical research. Third, the character of geographers' studies on Asia during the periods of Cold War and the post Cold War is reviewed. During the Cold War period, geography as an academic disciplin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cientification, and neglected the regional geographical research. Therefore, geographers' studies on Asia also decreased in number. However, during the period of post Cold War, geographers' studies on Asia were undertaken again. Finally, this paper outlines some agenda for studies of Asia for future Korean geographers as follows: the compilation of regional geography at the scale of subcontinents or nation, geopolinomial awareness in the research of human geography, and the consideration of environmentalism as an important frame of research.

Keywords | geography, Asia, geopolitics, environmentalism, regional geography